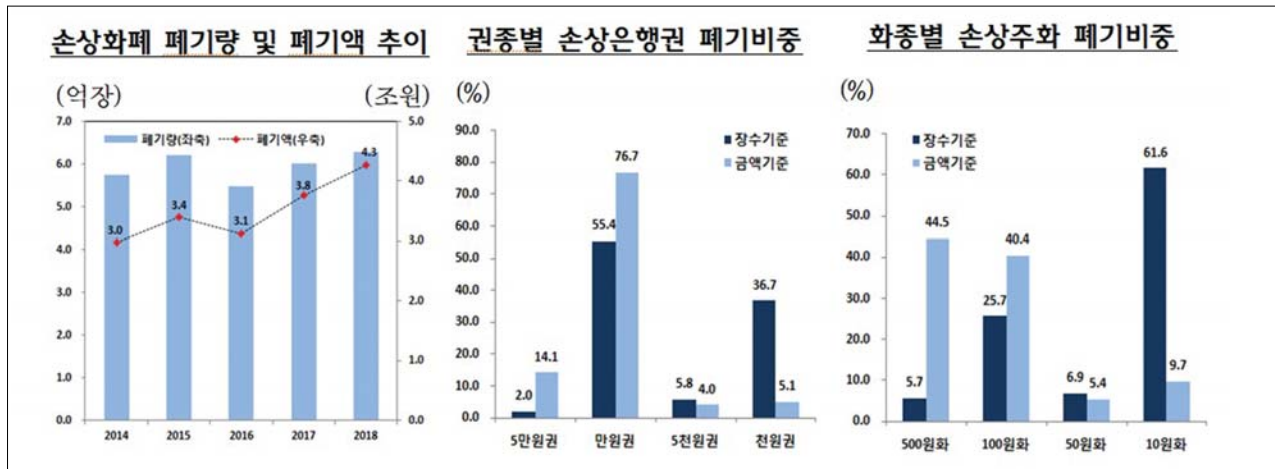


작년 폐기된 손상화폐 6억2700만장



한국은행이 지난해 폐기한 손상화폐가 6억2700만장에 달했다. 새로운 화폐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639억 원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8년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모두 6억2700만장으로 액수로는 4조2613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수준(6억200만장, 3조7693억 원)에 비해서는 각 4.1%, 13.1% 증가했다.

손상화폐를 한장씩 위로 쌓으면 62.5km 높이로 우리나라의 최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 높이의 113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백두산 높

한장씩 쌓으면 62.5km 높이...에베레스트산 7배

매년 증가세...새 화폐 교체 비용 639억원 달해

이와 비교하면 23배, 에베레스트산에 비해서는 7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망가진 화폐 중에서는 은행권이 4조2690억 원(5억9000만장)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중 1만원권이 3억3000만장으로 55.3%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1000원권은 2억2000만장 폐기됐고 5000원권 3000만장, 5만원권 1000만장 순으로 나타났다.

주화는 23억 어치(3700만개)가 손상되어 폐기됐다. 10원짜리 동전이 2300만개, 100원 900만개, 50원 300만개, 500원 200만개 등으로 집계됐다.

손상화폐 규모는 해마다 증가세다. 지난 2014년 2조9847억 원, 2015년 3조3955억 원에서 2016년 3조1142억 원으로 잠시 꺾였다가 2017년 3조

7699억 원으로 도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4조 원대를 돌파했다.

화폐 손상은 주로 보관을 잘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한은 창구에서 새 화폐로 교환된 손상화폐 규모는 1년 전보다 10억3000만 원(22.4%) 증가한 56억4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이 넘는 화폐 약 55%(12억7000만 원)가 장판 밑 눌림이나 습기에 의한 부패 등으로 망가진 것이었다.

이밖에 불에 타서 손상된 화폐 규모는 7억8000만 원(34.1%)으로 나타났다. 세탁기나 세단기 투입 등 취급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는 2억5000만 원(10.9%)로 집계됐다.

망가진 화폐는 남은 면적에 따라 액수를 차등 교환받을 수 있다. 훼손되지 않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새 화폐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4분의 3 미만~5분의 2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액만 받을 수 있다.

남은 면적이 5분의 2 미만이면 교환 자체가 불가능하다. 화폐가 불에 탔더라도 재가 은행권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는 면적으로 인정된다. 손상화폐 교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우체국, 연회비 없는 항공마일리지 신상품 '드림플러스 아시아나' 체크카드 출시

대형마트·주유소 등 사용...1,500원당 1항공마일리지·5% 캐시백

전남지방우정청(청장 강도현)은 아시아나항공, 마스터카드와 제휴를 맺고 연회비 없이 생활할인 혜택과 항공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드림플러스 아시아나 체크카드"를 15일 출시했다.



드림플러스 아시아나 체크카드는 해외 직구를 포함한 해외 결제 금액의 1%를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대형마트·소셜커머스, 주유소, 편의점, 커피, 면세점, 우체국, 영화관 등 7대 업종 이용 시 5% 캐시백과 1,500원당 1항공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은 한도가 없다.

신규 카드 출시를 기념해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품 행사도 열린다. 2개월 연속 해외에서 월 20만 원 이상 이용고객 5명에게 하와이 여행 2인 패키지 및 공항 라운지 2인 이용권을 제공하며, 국내에서 2개월 합산 100

만 원 이상을 이용하거나 해외에서 40만 원 이상을 이용한 고객 20명에게 제주신라호텔 2박3일 숙박권을 준다.

신규가입 후 3만 원 이상 이용한 1,500명에게 무료 커피쿠폰을 제공하며, 이벤트 기간 중 아시아나 국제선 왕복 항공권 구매 고객 전원에게 아시아나항공 1,000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우체국 예금 고객센터(1588-1900, 1599-1900) 및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은홍 기자

2025년 치매환자 100만시대 치매보험 속속 등장

오는 2025년 치매환자 100만시대 도래를 앞두고 치매를 단독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1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올들어 ABL생명과 KB손해보험, 흥국화재가 연달아 치매보험을 선보였다.

최근 치매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고령화 리뷰'가 인용한 국내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치매 유병률은 10.2%로 집계됐다.

치매환자수는 지난해 75만명으로 오는 2025년 108만, 2050년 303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연구원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1만명 이상 고령자가 가출하고 지난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에서 치매환자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향후 치매인구 100만명 시대를 맞아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치매질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치매 보장수요가 확대되자 보험사들이 치매를 주력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선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ABL생명은 지난 14일 '무(무)ABL 간편가입치매보험(무해지환급형)'을 출시했다. 1종 간편심사형의 경우 질병 이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

아도 별도 서류제출이나 진단 없이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해 치매 진단급여금과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ABL생명 관계자는 "12분에 1명씩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치매를 단계별로 집중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면서 "유병자와 고령자 등 치매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객들도 치매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B손해보험도 14일 "KB 더(The) 간편한 치매간병보험"을 선보였다. 이는 경증치매와 중증도치매, 중증치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비교적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경증치매와 중증도치매를 합산해 최대 5000만원 진단비를 보장한다. 가입연령은 40세부터 70세까지다. 업계 최초로 치매관련 보장금액이 85세부터 5년단위로 100%씩 체증이 되는 체증형 보장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이 치매에 걸려도 가입금액의 5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광주기업 "상반기 수출 전년 하반기 보다 악화 될 것"

수출 불안요인...원자재 가격 인상, 미·중 무역전쟁 등 꼽아

광주지역 수출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수출이 지난해 하반기 보다 악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6일 지역 수출기업과 상반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기업 10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상반기 수출전망과 정책과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수출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37개사·35.6%)가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36개사·34.6%)보다 많았다. 나머지 31개사(29.8%)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결과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와 경기침체 악재가 여전히 남아있어 수출 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 수출 전망은 가전·철강·고무·플라스틱·화학제품 등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물량 감소 영향을 받아 '악화' 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기장비·음식료·의료기

기 제품 등에서는 상대국의 수출물량 증가와 신규 거래선 발굴에 따른

수출 증가 기대감이 반영돼 지난해 하반기보다 수출이 '호전' 될 것으로



메르세데스-벤츠 뉴 스프린터 출시 16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모델들이 메르세데스-벤츠 뉴 스프린터 차량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뉴 스프린터는 1995년 1세대 출시 이후 현재까지 130여 개 국에서 360만 여대가 판매된 글로벌 베스트셀링 밴이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